



인후3동 새마을협, 수년째 홀로어르신께 밀반찬 전달

전주시 인후3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황승일)는 16일 거동이 불편한 관내 어르신 5가구에 정성껏 준비한 밀반찬을 전달했다.

이날 반찬 전달식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어르신들께 밀반찬을 전달했다.

황승일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홀로어르신들의 반찬 걱정을 덜어드리고 건강을 챙겨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해 사랑의 밀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후3동 새마을협의회는 이웃사랑 나눔실천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이미용봉사, 취약지역 환경정비, 홀로어르신 생일케이크 전달 및 장수사진 촬영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 전개해오고 있다. /김윤상 기자



건협 전북지부, 에너지취약계층에 연탄 지원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본부장 문창섭, 이하 '건협 전북지부')가 본격적인 추위를 앞두고 12월 16일(목) 전주연탄은행에 연탄 1,250장을 기탁했다.

기탁된 연탄은 에너지취약계층인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및 기초수급자 등 연탄세대에 전달해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건협 전북지부 관계자는 "추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이웃들에게 온기를 전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가 되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따뜻한 사회 만드는 사람으로 자라길”

꼬마코끼리가는길, 직접 기른 농산물 판매해 '엄마의 밥상' 후원

전주지역 꼬마 농부들이 직접 기른 농산물을 판매해 모은 수익금으로 아침밥을 굽는 아이들을 돕기로 해 훈훈함을 전했다.

꼬마코끼리가는길(원장 유혜숙) 원생 80여 명은 16일 전주시 '엄마의 밥상' 사업에 활용해 달라며 성금 72만8000원을 전주시에 전달했다.

원생들이 직접 기른 무, 배추, 오이, 고추 등 밭작물과 장아찌를 판매해 마련한 성금은 밥 굽는 아이들이 없도록 매일 아침 300명의 아동에게 따뜻한 도시락을 지원하는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꼬마코끼리가는길은 지난 2015년부터 '엄마의 밥상' 사업과 '지혜의 반찬' 사업에 써달라며 기부를 지속해 왔다. 또 지난 18년 동안 원생들이 지은 농산물 판매 수익금과 나눔장터 운영 수익금으로 연탄나눔, 김장나눔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후원을 전개해왔다.

유혜숙 원장은 "자연과 함께 아이들을 마음껏 놀게 한다는 신념 아래 자연친화적 교육을 통해 감성적인



어린이를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고 번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사람으로 자라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윤상 기자

## 전북농협, 농업인행복콜센터 돌봄대상 어르신 지원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농협김제시지부(지부장 김태곤), 광화농협(조합장 신광식), 광화 농가주부모임(회장 김안숙)과 함께 광화면에 거주하는 농업인행복콜센터 돌봄대상 어르신 맥을 찾아 오래된 벽지와 장판을 교체하는 주거환경개선활동을 펼쳤다고 16일 밝혔다.

지원을 받게 된 김모(77세) 어르신은 "올 겨울은 더 따뜻하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을 거 같다"며, "농협과 농가주부모임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김안숙 회장은 "농가주부모임은 앞으로도 농촌 어르신들과 소외계층에 관심을 갖고 농협과 협력해 나눔 봉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광식 조합장은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돌봄 어르신 등의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의 '농업인행복콜센터(☎1522-5000)'는 70세 이상의 고령·취약·홀몸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말벗 서비스를 통한 정서적 위로 제공, 생활불편 해소, 긴급출동 연계와 같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 우석대 교수장학회, 재학생 6명에 장학금 전달



우석대학교 교수장학회가 재학생 6명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제2차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수장학회는 지난 15일 실시간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장학증서와 장학금은 개별적으로 전했다.

이날 제2차 장학금을 받은 재학생은 김주영(에너지전지공학과 4년), 이예담(컴퓨터공학과 3년), 정나영(상당삼리학과 3년), 김상엽(태권도학과 4년), 정재혁(약학과 4년), 이승준(생명과학과 석사과정 2차수) 등이다.

조성길(보건의료경영학과) 교수장학회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교수님들이 개교 초부터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 매 학기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제2차 장학금을 몸소 실천하는 스승의 뜻을 깊이 새겨 학업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1981년부터 장학금 조성사업을 시작한 교수장학회는 전체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연간 11명에게 1,1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우아동 나기행사랑방, 이웃돕기 성금 기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나누어 기쁘고 행복한 사랑방' (이하 나기행사랑방)은 15일 우아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한 성금은 지난 11월과 12월에 걸쳐 첫마중길과 우아길 인근에서 개최된 골목상권 드림축제로 나기행 회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데 회원 전원이 함께 하기로 해 기부가 이루어졌다.

나기행사랑방 회원들은 "지역을 돕고자 하는 선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로 작게나마 소외된 곳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남원시 향교동통장협의회 성금 400만원 기탁

남원시 향교동통장협의회(29개 마을 통장)는 이웃들을 위해 쓰이길 바라며 400만원을 기탁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어려워진 경제상황으로 연말의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지만 추운 겨울 이웃을 살피고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는 미덕의 가치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나누며 사는 문화는 변치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했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지양근 향교동장은 "연말연시면 답지했던 온정의 손길이 더욱 절실할 때 29개 마을 주민들의 참여에 감사드리며 이웃과 더불어 사는 마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전북대병원서 3명의 뇌사자 장기기증 후 영면

뇌사판정을 받은 2명의 뇌사자 장기기증을 통해 6명의 송고한 목숨을 살리고 영면했다.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갑작스러운 뇌질환으로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뇌사자 2명이 각각 9일과 10일에 뇌사판정을 받고 장기를 기증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북대병원에서는 앞서 지난 2일 50대 남성의 뇌사자가 장기를 기증한데 이어 2명의 장기 기증이 이어지며 최근 열흘 새 3명의 송고한 희생으로 모두 8명의 민성 질환자가 새 생명을 선물받게 됐다.

전북대병원에서는 올 한해 총 12명의 뇌사자 장기기증을 하였고, 이 분들이 기증한 장기로 새 생명을 얻은 환자의 수는 41명에 이른다.

전국적으로 장기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국립장기이식센터

에 등록된 대기자 수는 약 4만 2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그에 비해 뇌사 기증자는 전국적으로 매년 약 500여명 수준이어서 이식대기자의 대기기간은 갈수록 길어지고 수많은 환자들이 장기기증을 기다리다가 결국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전북대병원은 1998년도에 처음 뇌사기증자 관리를 시작하여 올해까지 약 234명의 뇌사기증자를 관리하였고, 그 중 약 203명이 장기를 기증하였다. 전북대병원에서 기증한 뇌사자의 장기를 수혜 받은 환자가 총 888명에 이른다.

전북대병원 장기이식센터장 이식 교수는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수많은 환자를 위해 전북대병원은 앞으로도 뇌사 기증자 발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장기를 기증하신 분들과 유족분들의 송고한 선행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UM NAVER jjctv전북

###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